

장상씨, 후배들에 '여성 5계명'

“관리해야” 등 주문

전 총리서리가 자신에 대한 인준안 부결에 대해 “나에게 꼭 미안한 아니었다”며 후배 여성들 충고를 했다.

일 발간된 주간 여성 종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언론에 유의해야 한다▶이 하라▶진심을 믿게 하라▶사 승하기보다 자신을 주장하라

과 관련, “언론이 선정적으로 나가는 바람이려니 망심하는 데, 여성일수록 악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주

문화에 대해 “의원들이 날 볼 느껴졌다”며 “당시 9시 뉴스 표정으로 입을 크게 벌린 모습 보자마자 ‘이제야 우리 처음 식사하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파렴치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언론에 그려진 내 모습은 그야말로 괴물이었다”고 당시를 술화했다.

張 씨 는 “내 말을 안 믿고 피의자 몰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준이 부결되고 난 후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저희 부부를 만찬에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희호 여사가 저를 보자마자 ‘이제야 우리 처음 식사하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이종남 감사원장

세계감사원장회의 참석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오스트리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세계 감사원장회의(INTOSAI)와 아시아 감사원장 회의(ASOSAI)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4일 출국한다.



세계 감사원장 회의의 의장인李원장은 오는 15~17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제50차 세계감사원장회의의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감사원의 공동 연구과제 선정과 감사 업무의 발전을 위한 21세기 전략 기획안을 마련한다.

그는 또 21일부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감사원장회의의 제31차 이사회에 참석, 부패방지 대책과 감사 기법 등을 논의하고 한·중·일 3국 감사원장 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 이뤄야”

박영숙 지속가능발전위원장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할까요, 해선 안될까요. 이처럼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꾀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에 대한 대안부터 내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새 위원장으로 지난 7일 임명된 박영숙(朴英淑·70)씨.

그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보존의 기본 원칙이 된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후손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세대가 생태계와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2000년 가을에 창설된 PCSD는 임기 2년의 장관급인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 13명과 시민단체·산업계·학계 중진들이 참여하는 환경 분야의 ‘미니 내각’이다.

朴위원장은 “97년 정부가 ‘국가 의제’를



마련했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한 수준이라 PCSD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朴위원장은 “지난달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朴위원장은 PCSD위원장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80년대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과 평민당 부총재 등을 지냈다. 90년대에는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과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국내 환경운동의 기수 역할을 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